교수동정

【서울캠퍼스】

△서혜경(기악)교수=5월 1일까지, 해외연주차 미국 방문

△김병호(의학)교수=20일까지, 학회 논문발표차 포르투칼 방문

취업정보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제우미디어=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3142-6843

△(주)유공몬텔=기술영업, 화학과, 786-2090/4

(주)나드리 화장품=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740-9071/3

△(주)인터엠=해외영업, 방송음향시스템설계, 법대, 정경대, 0351)60-7111/3

△(주)옥시=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421-6789

△지멘스정보시스템=회계학 전공, 783-4885

△(주)케이텍맨파워=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554-3579

△(주)대동공업=비서실(여), 영문학, 경영학, 3470-7366

△(주)삼지니포리머=경리부(여), 경영학과, 회계학과, 636-6411/4

【수원캠퍼스】

△(주)나드리 화장품=상경계열, 14일 까지, 740-9171/3

△복음 보청기=상경계열, 636-0274

△Winbase Software=전산과, 15일 까지, 572 -1145

△(주)인터엠=전자공학, 상경계열, 16일 까지, 035)60-7111/3

△(주)지중해 산업=20일 까지, 338-1927

△(주)동화기업=상경계열, 18일까지, 032)5805-182,7

△(주)페라가모 코리아=회계학과, 3442-1855

△(주)에이치 앤 제이=무역학과, 542-6228

△한세상사=무역관리, 0339)376-8680

△(주)세흥섬유=섬유공학, 무역학과, 15일 까지, 845-9400

△중국 연흥 총공사=중어중문, 3274-1966

△(주)수산 중공업=무역학과, 518-8866

△(주)삼희기업=건축학과, 14일까지, 0331)221-6704/5

아르바이트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관인 월드 종합 예술원=도우미, 3443-3600

△마이크로 랜드=컴퓨터 부품 납품, 3272-4640

△새한 익스프랜스=배송보조, 3158-3631

△아가페 교회=악기 연주자, 930-3526

△대성학력개발 연구소=모의 고사 답안 분류, 826-1625

△한국엔지니어링=텔레마켓팅, 781-8424/5

△(주)한승마케팅= 조사 업무, 3142-0983

△국도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외근 홍보직, 3494-6277

△중앙일보 행사 기획팀=설문조사, 753-8421

△대성학원=반송작업, 812-3415

【수원캠퍼스】

△88컨트리 클럽=평일 근무직, 0331)282-0881

△영동 한샘 학원=사회과목 보조강사, 0331)204-0777

△DACOM 대리점(다물기획)=가입 신청서 유치, 597-6225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파란색20단 산악용자전거=중앙도서관 자전거보관소, 강무관(012-1343-7844)

△백금반지=2일 문리대 화장실 세면대

【수원캠퍼스】

△갈색 다이어리=1일, 외대 321호실

△황갈색 다이어리=3월 31일, 학생회관 식당

△검정색mook우산=학생회관 로비

△검정색 지갑=중앙도서관 화장실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지갑=이미원(법학) 본관앞

△지갑=전찬일, 정문

△지갑=김민정(경영) 정문

△학생증, 주민등록증=김송이(치의예)

△주민등록증=남정선

【수원캠퍼스】

△학생증=유기완(화학공 96)

△학생증=신희종(기계공 3)

등 기

등기물우편실로

【서울캠퍼스】

△국문=김세화(1), 김진아(2) △생물=이인순(4) △영문=조종여(4), 신용성(91) △법대=김병택(1), 한친탁(1), 김수웅(3), 김주영(4), △신방=명진혜(석사), 박진업(4) △경제통상=최치훈(1) △회계=이동훈(4) △경영=박준우(2), 정민교(3) △무역=이동찬(3) △영교=이혜진(97) △의학=박화진(2), 임명철(4), 장재민(4) △한의예=권진혁(96), 황덕상(1), 손경락(1), 김송이(3) △한방=장재혁(4) △작곡=이영진(97), 김은주(3) △성악=이상민(3) △관현악=강은영 △그림자놀이 △ 총학생회

【수원캠퍼스】

△중문=서은희(3) △건축=김세일(2) △전자=김동욱(3) △섬유=유희재(4) △농학=김대중(3) △태권도=전성아 △애지원=왕민정(538)

도깨비 장터

삽니다

【서울캠퍼스】

△486컴퓨터 13대=가격절충, 581-0017

△산악용 자전거=5만원, 015-8662-1002

△공학용 계산기=가격절충, 012-1860-4112

△전자키보드, 엠프=가격절충, 581-0017

【수원캠퍼스】

△동아리용 큰 책상 Head Line=201-2790-404

△동역학 풀이집=012-1118-0363

△컴퓨터 486급=015-7761-4352

△노트북 랜카드=015-8308-6912

△세탁기=4만원, 015-8336-0468

△컴퓨터 책상, '식생활과 건강'=0331)44-8418

팝니다

【서울캠퍼스】

△2인용침대=가격절충, 011-876-8410

△전기밥솥=가격절충, 015-146-1029

△Hanger=가격절충, 015-8502-7640

△'calculus'=012-921-3351

【수원캠퍼스】

△엠씨 스퀘어=가격절충, 015-8345-3587

△'물의 오염'=015-339-8589

△오토바이 VF=015-116-7039

△'언어의 이해'=012-257-0114

△'식생활과 건강'=012-218-6265

△'현대사회와 광고'=015-8332-1278

학우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벼룩시장인 '도깨비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 팔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깨비장터 대자보에 기입해 주기 바랍니다.

주간 식단표

4월13일~ 4월19일 서울 복지회관 식당

구분	요일	월(13일)	화(14일)	수(15일)	목(16일)	금(17일)	토(18일)	일(19일)
아침	3층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탕국 1,300	시금치된장국 1,300
	2층	북어계란국 1,300	순두부찌개 1,300	쇠고기미역국 1,300	어묵국 1,300	쇠고기콩나물국 1,300		
점심	3층	카레라이스 1,700 닭갈비백반 1,700	함박스테이크 1,700 쇠고기야채밥 1,500	하이라이스 1,700 쇠고기김치 볶음밥 1,500	생산까스 1,700 중국식볶음밥 1,500	비프스트로가노프1,700 해물볶음밥 1,500	폭찹 1,700 사골우거지국 1,500	멕시칸라이스 1,500 회덮밥 1,700
	2층	돈갈비김치찌개 1,700 콩나물밥 1,300	육개장 1,500 영양밥 1,700	열무비빔밥 1,500 불낙전골 1,700	갈비탕 1,700 쇠고기볶음밥 1,500	제육볶음덮밥 1,700 콩비지찌개 1,300		
저녁	3층	오믈렛라이스 1,500 해물잡탕밥 1,700	양송이볶음밥 1,500 쇠고기버섯 볶음밥 1,700	스위스테이크 1,700 마파밥 1,500	해물스파게티 1,500 가지불고기덮밥 1,700	김치카레 볶음밥 1,500 양장피잡채 1,700	짜장두부덮밥 1,500 돈육보쌈정식 1,700	치킨까스 1,700 장국밥 1,500
	2층	오징어숙회 비빔밥1,500	야채만두국 1,500	쇠고기된장국 1,500	부대고기찌개 1,500	사골떡국 1,500		

4월13일~ 4월19일 수원 학생회관 식당

구분	요일	월(13일)	화(14일)	수(15일)	목(16일)	금(17일)	일(19일)
아침·점심 1,200		아욱국	미역국	얼갈이배추국	두부쑥갓국	우거지국	당면파국
간편식I 1,500		회덮밥	모듬튀김정식	쇠고기부추 볶음덮밥	탕수육	열무비빔밥	치킨정식
면류		스파게티 1,500	비빔냉면 1,300	짜장면 1,200	쟁반모밀국수 1,500	만두라면 1,300	짜장면 1,200
저녁 1,200		다시마국	쇠고기무국	김파국	된장찌개	계란파국	두부찌개
간편식II 1,500		만두국	오징어덮밥	제육콩나물덮밥	보쌈정식	볶음밥	
스 낵		우동,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만두튀김, 치킨세트, 씨리얼세트					

4월13일~ 4월18일 수원 공대식당

구분	요일	월(13일)	화(14일)	수(15일)	목(16일)	금(17일)	토(18일)
아 침		시금치된장국 1,200	열두부김치국 1,200	어묵국백반 1,200	뼈해장국 1,300	미더덕콩나물국 1,300	들깨미역국 1,200
점 심 1		닭곰탕 1,500	육개장 1,300	해물잡탕 1,500	참치김치찌개 1,300	돈육김치볶음밥 1,300	알찌개 1,500
점심2		카레라이스 1,300	새우까스 1,500	탕수만두백반 1,300	함박스테이크 1,500	비프스튜 1,500	폭찹 1,500
저 녁		오징어볶음덮밥 1,300 후랑크정식 1,500	보리밥정식 1,500 계란볶음밥 1,300	청국장찌개 1,200 제육볶음덮밥 1,300	돈까스정식 1,500 마파밥 1,200	쏘세지야채볶음덮밥 1,300 뚝배기두부찌개 1,500	
스 낵		해물파전 1,000 쨈식빵튀김 900	떡볶이 900 팬케익 1,000	찐만두 900 후렌치토스 900	김치전 900 떡꼬치 900	군만두 1,000 통감자양념구이 900	튀김만두 1,000
면류		김치우동 1,500	짜장면 1,200	모밀비빔국수 1,300	해물스파게티1,300	비빔냉면 1,300	김치라면 1,000

알림터 이용안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마감

알림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시판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식이나 알리고 싶은 일을 전해 주십시오.

문의 Tel. (02) 961-0095 Fax. 962-7718
Tel. (0331) 201-2056 Fax.(0331) 204-8121

열린소리 참여안내

열린소리는 경희 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야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시, 만화, 사진, 수필 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은 사안·취재 제보가 있으면 학내에 비치된 열린소리함이나 다음 PC 통신 ID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내외
■ 보낼곳: 서울·수원 본사 편집실
하이텔(ID):khunews 천리안(ID):zpiknews

☐ 1142호, 남상남씨의 '한국현대시…' 에 대해

충분한 연구과정 결여된 '억지'

대학주보 지난 호에 실린 남상남씨(영문학과 박사과정 1기)의 한국 현대시문학에 관한 비판의 글은 게재된 형식과 지면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경솔함을 넘어서 무례하기까지 한 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시문학에 대한 위험스러운 편견을 여과없이 드러낸 그의 글은 그가 밝힌 신분처럼, 영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의 길로 갓 들어선 사람의 것으로 보기가 민망한 면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그의 글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1994년을 전후해서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아마도), 문학적 재능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는 점, 한국의 시문학 정도는 영어로 번역해 낼 만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는 점 외에는 그의 문학적 편력을 짐작할만한 아무런 정보도 그의 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기야 허락된 지면이 겨우 원고지 열장 내외로 지극히 협소한 때문에 깊이 있는 글을 싣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백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현대시문학을, 단지 영어로 번역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하나 때문에 형편없는 수준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의 글에서 어느것 하나 수긍할 만한 점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의 경솔함은 '미래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전집류의 시집들을, 그것도 시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해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영어로 번역하기 위한 작품을 찾기 위한 독서과정 중에 내려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소설 문학뿐만 아니라 시문학도 당대의 역사·사회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때, 시적 언어가 함유하고 있을 역사·사회적 내용들을 단 한 번 독서로 읽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작가들 못지않게 많은 비평가들이 시문학을 연구하고 비평하는 고된 작업을 꾸준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과 비평의 작업은 수많은 문학가들과 문학 연구가들에 의해 수십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아울러서 볼 때 험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문학이라는 것이 이러함에도 백여권의 전집류를 한 번 훑어본 느낌으로 한국의 현대시문학을 단 몇 줄의 글로 묶어 매도시켜버리는 그의 글은 무례를 넘어서 '모독'에 가까운 것이다.

각국의 언어에는,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살아낸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사와, 그 역사가 뿜어내는 숨결과, 숨결에 담긴 고유한 가치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세계와 우주를 해석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는 자기가 연구중이던, 미지의 원주민어를 사용하는 마지막 원주민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우주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영원히 상실해 버렸다"며 탄식했다. 세계문학을 논하는 남상남씨의 논리에서 얼치기 제국주의자의 혐의가 짙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문학을 가늠하는 그의 잣대가 우리의 것이 아닌 영어판 번역본을 염두에 두는 듯한 냄새 때문이다. 그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원작의 수준이 명작 수준이어야만 영어 번역판도 우수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외국어로 외국문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번역판 문학이 명작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평가한단 말인가? T·S엘리어트의 〈황무지〉가 불멸의명작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되어서도 명작으로 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등은 명작이 아닌 때문에 영어로 옮겨놓아도 명작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말이다. 그는 오록 교수님이 번역하고 있는 한국의 고전 시들을 명품이라고 칭송을 하면서 그 이유를 '오랜 세월의 시험과 평가를 이겨낸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며, '한국의 고유정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록 교수님이 번역하고 있는 한국의 고전시가들은 대부분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다. 그 고전시가들이 명작의 내용을 갖추어서 그 오랜 기간을 전해 내려왔는지 역사의 질곡에서 다행스러우면서도 우연스럽게 보전되어 온 작품들인지는 확실하게 가늠할 수 없다. 그리고 오록 교수님의 번역이 무사히 마무리 되어서 영어로 출판된다고 해도 세계문학사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할런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명작의 기준'이라는 것이 작품의 내적 속성이나 작품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한편의 시가 번역할만한 가치가 있는 명작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은 명작이 되기 위해 어느 만큼의 숙성기간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학을 충분히 접하고 받아들일만한 기간의 독서와 노력이며, 외래의 이론이나 시각이 아닌 우리 문학의 독자적 가치를 깨달을만한 학자로서의 연구기간인 듯 싶다.

고 재 갑
〈외대 영문 3〉

학습의 자유 보장돼야

대학에 처음 들어오는 새내기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대학에 와서 타의가 아닌 자의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는 자기를 상상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상상에 설레인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대다수의 98새내기들은 이런 상상이 입학도 하기 전에 깨졌다.

수강신청 겸 오리엔테이션 날이었다. 간단히 설명회를 갖고 바로 수강신청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나누어준 강의 시간표를 받고 들뜨기 시작했다. 꼭 한번은 배우고 싶었던 혹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강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수강신청에 들어가니 그런 들뜨던 기분은 곧 학점이나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변했다. 처음부터 듣고 싶었던 강의는 하나도 신청 할 수 없었다. 두번째도 세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는 교양필수도 신청 못 할 판이었다. 결국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흥미조차 없는 강좌만을 신청하게 되었다. 대학생활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물론 정정 기간이 있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된 꼴이었다.

물론 우리학교만이 이런 것이 아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 학부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더더욱 심해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학교와 차별화를 선언한 학교측은 이런 세심한 아니 어쩌면 당연한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안된다. 학교측은 가능한 한 빨리 다음의 새내기들이 똑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좀 더 개선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 윤 규
〈자연과학1〉

강의실변경 공고 필요

지난 화요일 나는 수업시간을 약 20여분 지나 강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강의실에는 학생과 교수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칠판에는 수업내용이 몇가지 적혀있었는데 대체 휴강인지 야외수업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곳에 학생 한 사람이 앉아 있어 물어 보았더니 야외 수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외대 주변과 체대 공대 잔디밭까지 찾아 보았으나 야외로 이동된 우리 강의실은 찾을 수 없었다. (나중 알게된 사실이지만 그 수업은 외대 잔디밭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결국 나는 그날 수업에 참석 할 수 없었다.

수업시간을 무려 20분이나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수업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으로써 수업의 정석을 먼저 어기긴 했으나 교수님 역시 강의실 변동이 있을 때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알렸어야 한다고 본다.

칠판에 분필로 '외대 잔디밭에서 야외수업'이라는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수업에 결강하게 되지는 않았을 꺼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 하 정
〈사회과학 2〉

학교·학생, 동등한 대화주체로 서길

대학은 선진 문물의 연구에 기반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여 사회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주류문화와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새로운 문제의식과 제기를 통해 생성된 이데올로기를 유통시키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류 이데올로기와의 갈등과 그속에서의 검증은 필연적이기도 하거니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하기에 대학과 사회의 미묘한 긴장관계는 하나의 필연적인 모습이며, 대학의 성격 규정에서도 핵심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의 존재의의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존재 의의는 대학의 자치활동과 바로 직결된다. 대학인은 자유로운 학문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 민주적인 토론과 연구등 자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한 사상적 정치적 견해들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토론하고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장되고 장려되어야 할 대학의 자유가 학생생활 규정에 의해 오히려 침해 받게 되었다. 더구나 아무런 사전 협의나 대화통로 없이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 학생처장 지도교수에 의한 선전물 대자보 등의 사전검열과 집회를 위해 장소를 사용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모든 의견개진 통로들이 사전에 막히고 있다는 점이 문제 되고 있다. 분명히 사전 검열과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대학이 지니는 자유로운 이데올로기 생성과 유통 그리고 연구의 자유라는 위상에 위배되며 대학내 민주주의 실현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는 우리학교의 교훈이며 또한 동시에 이시대의 모든 대학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대학의 위상이다. 이러한 지향속에서 학생생활규정은 대학문화에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와 자유에 명확히 배치되며 그 과정에서의 합의와 대화없는 통과 역시 그 대학의 위상과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선 학교측은 대학의 자유를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적용 대상인 학생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대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측은 대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을 대학의 일주체이자 동등한 대화주체로 받아들이고 원칙과 철학이 있는 학교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 충 호
〈정외 4〉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발전기금조성 캠페인은 출연금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경희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에 동참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경희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8.4.1~4.9)

• 이한규(73행정학과)	50만원
• 박천수(관리과 기능직)	60만원
• 고순호(58정외과,(주)동선섬유 대표)	1천만원
• 홍창표(89경영학과, (주)한화에너지)	월 3만원씩 영구월납

◀경희사랑저금통장

• 조용호(학생처장, 의과대학 의학과교수, 18차)	6만2천790원
• 장창수(92정경대 경제학과)	1만8천240원
• 장명재(체대 체육학과교수)	6만6천40원
• 안영수(국제교육장, 문리대 영어영문학과교수)	6만6천원
• 이관식(외국어대 교양과교수, 8차)	4만5천원
• 최풍근(경영대학원과장, 2차)	5만3천950원
• 홍성면(사범대학장)	2만540원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